



이집트 시와에서 만난
유목민 아누아르가
가르쳐준 치유차의 방식을
오늘의 언어로 재현하며,
그에게서 건너온 치유와
사랑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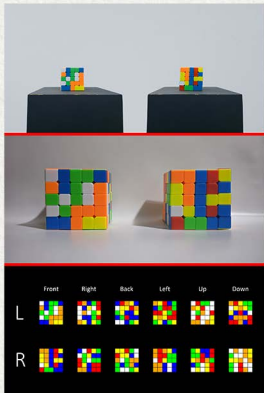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Cube Poll>의 두 큐브의 세 가지 형태를 판매하기

<Cube Poll>은 참여자들의 물리적 행위를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그 누적된 변형을 오브젝트로 전환하는 구조를 탐구한 작업이다. 전시장에는 서로 다른 선택지를 대표하는 두 개의 큐브가 설치되며, 각 큐브는 전시 기간 동안 관객의 개입이 축적되어 하나의 단일한 결과로 굳어진다. 이 두 큐브는 작품이 생성한 상호작용의 총합이자, 그 흔적이 물질적으로 응결된 증거로 기능한다.

전시는 사라지지만, 관객들의 선택이 형상화된 조각은 박제되어 물성으로 남는다.

2회 요즘미술마켓에서 작가는 전시의 결과로 남은 관객-조작 ‘원본 큐브’, 그 상태를 동일하게 복제한 ‘복제 큐브’, 그리고 그 결과를 절차적·비물질적 형식으로 정리한 ‘상태 재현 매뉴얼’이라는 세 가지 형태에 상이한 가치 척도를 적용해 개별적으로 판매한다. 이러한 구성은 동일한 기원을 공유하는 사물들이 매체적 차이와 재현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위계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Tear bed>

뺨리를 틀고

바닥에 옆으로 누운 나는
눈물이 흘러 흘러 나의
모습으로 고이는것을
미쳐보지 못하고 물 속으로
잠겨버리고 만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그때 배웠던 노래 몇 곡을 모았다. 이 노래들은 라디오 학교방송에서 배운 신작 동요이거나 노래가 나오는 동화책에서 익힌 것이다. 당시에든 지금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 노래들을 나는 가끔 흥얼거리지만 제목이나 가사가 조금씩 떠오르지 않는다. 어느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소개하듯이 노래들을 들려 주고 싶다. 그러다가 한 곡이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 잊어버린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되면 반갑겠다. 이번에는 알려지지 않은 시 두 편도 준비해 보았다.



<찌그러진 오후>는
추석에 친척들 앞에서
동생과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찍은 사진을
보며 지은 제목이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그날 밤새 검은 당을
쳤다. 그것은 내가
소비하지 않아 이른
점유의 증거다. 손끝
흔들림, 그게 남긴
끈적임, 골장 찾아
개미들이 그은 통로,
먼지가 달라붙어
만든 낮은 윤곽 모두
사건의 증언이고, 그
증언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때까지는
나도 현장을
주장한다고 믿었다.



다음날, 폭우가
내린다. 비는
감식하듯 일하더라.
표면의 끈적임이
건히고, 자리에 다른
증거가 솟는다. 철제

모서리 얇은 녹, 벽면에 물길 번짐,
바닥에 가벼운 얼룩 경계. 씻긴
흔적이 부재의 증거 되어, 한밤에
눌러놓은 점유를 역으로 또렷하게
발음해. 작업도 손을 벗어나 자연에
맞물려 제자리를 찾았고, 나를 그
회복의 바깥으로 다시 밀어냈다.
마치 내가 세상을 망치려 온 자인
것처럼, 그들이 나를 지워, 넣으며
스스로 질서를 돌려내더이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낯씽이즈리얼
NOTHING IS REAL

낯씽이즈리얼에서 전시한 작가들 책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이 특수하게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추억이
티셔츠입니다.



제작된 액자
것은 저의
담 긴
이 티셔츠에

새겨진 문구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담의 친필
싸인입니다. 일본에서 현재 제로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거의 청년 사이버 가수 아담은 50대의 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을 있는
그대로 보관하고 싶어서 만든 액자이지만, 현재의
어려운 환경 속에 생활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판매하고자 내놓고자 합니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나의 행복단어를 도장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나는 종종 세상의 표면에서 살짝 이탈하듯 멀어진다.
지하철의 갑갑한 공기, 과장된 부동산 간판의 활자, 박제된 듯한
노래방 광고의 빛. 이런 것들은 내 일상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나의
정신을 폭력적
으로 침범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그대로 들고 있지 못하고,
올드카나 낡은 찻잔 같은, 조금 낯설면서 동시에 매혹적인 이미지로
바꾸어버린다. 상상하고, 뒤틀고, 엉뚱하게 끼워 맞추는 순간일상의
무게는 잠시 작은 틈을 만든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2025. 12. 18 (약장)



왕경민 x 왕현우

<최초의 케이크>는 작가 왕경민이 인생 최초로 만드는 케이크를 실제로 굽고 판매하는 퍼포먼스형 작업이다. 왕경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케이크를 만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도전한다. 왕현우는 이 케이크의 레시피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켓에서는 당일애 완성된 케이크 1개와 케이크 레시피가 판매된다.
케이크는 굽는 날에만 판매되며, 이후에는 오직 레시피만 판매한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공기 입자 열매> 2024~는

색연필을 깎으면 남는
나뭇조각을 모아, 정리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과일을 깎으면 생기는 껍질같이, 색연필을 깎으면
남는 부산물은 완성된 하나의 작은 조각입니다.
이들을 가능한 잘 모으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는 중입니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예술인 재정상담 지속 가능한 작업 환경 만들기

저는 시각예술 작가입니다.
그동안 작업과 생계를 동시에 붙잡아 왔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경제 강의를 찾아 다녔지만,
예술인의 현실을 몸으로 아는 강사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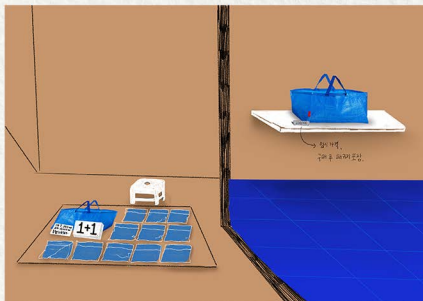
그래서 결국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자. 어찌됐어.”
그렇게 공부했고,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이 재무상담 시간은
예술가가 예술가에게 건네는 ‘생존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하고,
불안을 다루며 나만의 계획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작업 수명은 관리하면 더 길어집니다.
그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만질 수 없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에 대해

이 작업은 패션업에 종사하며, 반복적인 ‘택달이’를 수행하며 느꼈던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시장에 쌓여 있던 옷에 이를 하나 달리자마자 가치라는 껍질을 입고, 백화점 진열장으로 옮겨지는 광경을 매일 봐야만 했다. 이름과 이미지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체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과 사물을 규정하는지 체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설치와 유통 구조를 바탕으로 이미지와 브랜딩, 허상이 어떻게 실체보다 더 강력하게 권위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Crys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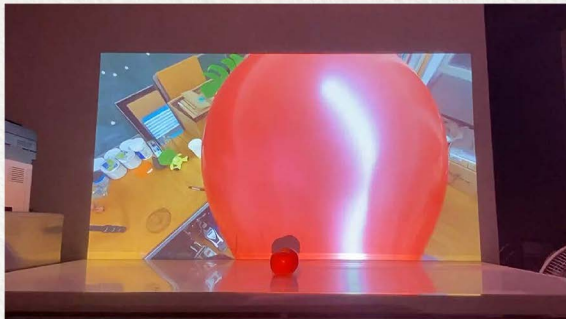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창문의 성애가 녹아 사라지는 것을 촬영한 영상 작품입니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I am eating>

일반적으로 사과를 먹는 행위는 직접 입이 닿아 그것을 파괴하고 분해하여 소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흔히 유기적인 행위라 칭해진다. 그렇다면 비유기적으로 사과를 먹는 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도한 작업이다. 단지 유기적인 시간과 비유기적인 시간의 차이일 뿐 사과는 대기중에 분해되고 풍선으로 시각화된 나의 욕망은 대기 중에 분해된 사과를 흡입하며 부풀다가 터진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접혀진 나와 펼쳐진 나>

나의 모습은 주로 나의 얼굴, 형태, 성격, 사회적인 지위 등등으로 형상화된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적인 모습은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리저리 주름져 있다.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주름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나의 접혀진 모습이다. 그리고 나의 존재는 주로 나의 위치, 방향, 움직임 등으로 확장되어 정의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나를 하나의 형상으로만 생각했을 때 가능한 정의이다. 내가 만약 흔적으로서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지상 위, 나의 펼쳐진 모습이다. 접혀진 모습과 펼쳐진 모습, 이 둘은 손의 힘이 응축되고 팽창하는 두 가지 운동을 내포한다. 이는 마치 시각이 대상을 수축하여 지각하고 의식이 이를 여러가지 지점들과 연결하여 해석하거나 운동하는 것과 같다. 동시에 수축되어 형상화된 나와 알 수 없는 상상 속의 나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편견테이블〉은 타인을
마주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그 중에서도 첫인상 편견을
가 시 화 하 는
퍼포먼스입니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Drawing pencil>

저는 드로잉이 가진 본래의 특성과 개념에 주목하며, 평면·입체·설치·퍼포먼스·협업 등 다양한 매체로 드로잉을 확장하는 놀이를 즐겨왔습니다. 미술이 흔한 농담처럼 가벼울 수도 있기를 바라며, 작업에는 늘 작은 유머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따금 주요 시리즈에서 벗어나 굵지 형태의 작업들을 만들곤 하는데, 2018년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휴전선을 뺏기로 만든 <Lie in Korea>, 2023년 아트페어 고민에서 출발한 티셔츠 작업 <보크너가 그랬지>에 이어, 세 번째 작업인 <Drawing pencil>을 요즘미술마켓에서 선보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2016년 작품 <What is drawing now>를 자기참조하며 만들어졌습니다. 미술 매체는 종종 재료명으로 구분됩니다. 'pencil on paper'처럼 재료 자체가 드로잉의 매체라면, 그 재료를 종이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드로잉이 되는 건 아닐까—하는 작은 농담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어오던 파스텔 드로잉 시리즈 <PAPASTEL>과 개인전 <종만리>(2024, P21)를 준비하던 시기에 아버지가 별세하셨습니다. 전시 이후 '더 이상 그릴 대상이 없어져버린' 상태의 저 자신을 생각하며 이 작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Drawing pencil>은 저처럼 갑자기 그릴 대상을 잃어 막막한 사람들, 혹은 드로잉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가벼운 농담입니다. '종이 위에 연필을 올려두기만 해도 드로잉이 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작업실이나 집, 임은빈의
생각 속에 방치해 둔 몇 안
되는 물질작품들 팝니다. 
모퉁이가 둥근 삼각자,
반드시 개어진 옷,
고무줄자, 작품이 된
수학의  정석과
현대미술사전이 있어요.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s days 1F

<몸무게>

이경민

<바다찾기>

이경민

<고양이 수염의 비밀>

이경민

<귀엽고 잔혹한 미술학원 이야기>

임유빈

<남긴 날, 남은 말>

임유빈

<힘들면 쉬어가세요>

임유빈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영혼의 우산>

이 장우산 작품은 본인의 작품 '십자가의 영성'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하였습니다. 작품 속 원형은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며 영혼들이 겹쳐지며 3개의 십자가 형상을 띄며 오렌지 색상은 행복을 하늘색 색상은 천국과 맑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본 작품은 세상의 비바람이 거세고 힘들어도 인간의 화합과 어우러짐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울타리법 FENCE LAW>

네 개의 손이 만든 하나의 모듈이 촘촘히 연결되면 철조망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경계를 만든다. 연결된 네 개의 손은 한편으로 관계맺기와 연대를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과 밖의 단절을 공고히 하며 모듈 밖 공동체와 단절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모듈이 서로의 장력을 유지하며 균형을 이룰 때 철조망-세계의 망이 형성되지 않을까? 경계는 자연적으로 혹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세상은 이러한 경계들로 맞닿아 공생하는 것이 아닐까? 각각의 모듈-공동체를 인정하면서도 폐쇄성을 넘어 열려있음을 호소할 때 전체의 관계망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

요즘미술일층
art these days 1F

<불안

편안>

신문접기 놀이에서
착안했다. 불안과 편안을
넘나드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뜨개물이다. 물론
덮거나 깔 수도 있다!

2025 12

17수~21일

14:00-18: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7, 1층 | 02-6958-5753 | art-thesedays.com